

배려지향적 도덕성과 정의지향적 도덕성에 관한 연구 : 성과 성역할 정체감 및 연령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Care- and Justice-Oriented Morality : Relationships to Gender,
Sex Role Identity, and Age

정 옥 분**

Chung, Ock Boon

곽 경 화***

Kwag, Kyung Hwa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of care- and justice-oriented morality by gender and sex role identity among adolescents, and young and middle-aged adults. The subjects were 115 males and 125 females between 16 and 59 years of age. Instruments were the Ethic of Care Interview(ECI), the Korean Defining Issues Test(DIT), and the Korean Sex Role Inventory(KSRI). Age was found to be a significant factor in both care-and justice-oriented morality; that is, young and middle-aged adults demonstrated higher care-oriented morality than adolescents. While,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demonstrated higher justice-oriented morality than middle-aged adults. Females exhibited higher levels of care- and justice-oriented morality.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was found between gender and age for justice-oriented morality.

Key Words : 배려지향적 도덕성(care-oriented morality), 정의지향적 도덕성(justice-oriented morality), 성역할 정체감(sex-role identity)

※ 접수 2002년 10월 31일, 채택 2002년 12월 11일

* 이 논문은 2000년도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의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일부임

**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E-mail : obchung@korea.ac.kr

***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 박사과정

I. 서론

도덕성이란 선악을 구별하고,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며,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준수하는 능력을 말한다. 도덕성 발달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규범에 따라 행동하도록 배우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Kohlberg(1981)는 도덕적 행위란 도덕적 판단능력을 의미하며, 이런 도덕적 판단의 원리를 정의로서 간주하였다. 정의(justice)란 보편적인 원리로서, 도덕적 관점을 구성해 나가는 기준을 의미한다.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을 주체적으로 인식하며, 우선적으로 개인의 권리나 평등·공정성·의무 등을 강조한다(이미식, 2000). 또한 정의의 윤리는 공정성, 보편가능성을 강조하고,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 일반적으로 동의 또는 합의에 이르려는 노력을 중시한다.

반면, Gilligan(1982)은 도덕성 발달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이론적 틀로서 인정되어 온 Kohlberg의 도덕성 발달에 관한 이론이 여성들에게는 편파적인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즉, 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이론은 추상적인 추론을 강조함으로써 남성의 성역할 가치는 높이 평가하고, 상대적으로 여성의 성역할 가치의 중요성은 축소하였다는 것이다. 정의를 중시한 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이론은 이성이나 평등, 존엄성, 자율성 등과 같이 남성적 특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남성주의적인 것인 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보호, 보살핌 및 책임 등과 같이 여성의 도덕적 판단에서 나타나는 대인관계적 요소를 평가절하함으로써 도덕적 추론에서 여성들이 사용하는 ‘다른 목소리(different voice)’는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남성중심적

인 도덕성 발달이론을 대신하여, Gilligan은 여성의 도덕성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으로 배려(care)의 도덕성을 제시하였다.

도덕성이란 본질적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이론은 타인에 대한 배려나 보살핌,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과소 평가한 점이 없지 않다. 이에 대하여 Gilligan은 인간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공정한 도덕적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배려의 도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정의의 관점뿐만 아니라 배려의 관점에서도 도덕성에 대하여 접근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Skoe & Gooden, 1993).

최근에 와서 정의와 배려의 도덕성은 통합적인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접근되어 왔다. 이런 통합적 접근은 정의와 배려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인정하면서도 개별적인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으며, 정의와 배려가 통합된 성숙한 인격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덕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도덕적 상황을 공정하고 평화롭게 해결하며,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배려와 공정한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이미식, 2000). 이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중시하며 보편적인 규칙이나 원리에 근거하여 사고한다고 하는 정의의 윤리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중시하는 배려의 윤리가 통합되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정의와 배려지향의 도덕성에 관한 통합적 관점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도 시급히 요구되는 과제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서구적 요인과 전통적 요인이 충돌하면서 새로운 규범이나 가치관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사회적 부적응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이동원, 1992). 즉, 21세기를 지배할 새로운 윤리는 개인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은 사회를 통해 개별화되며, 소속된 공동체의 복지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박윤명, 1997).

배려의 도덕성은 개인주의로 인한 개인간의 단절이나 고립, 상호존중의 부재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정받고 있다(박병춘, 1999). 더군다나 우리 사회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활하며, 공동체 생활에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중시한다. 특히, 우리 사회 전반에 잠재하고 있는 유교적 가치관은 자아와 타인간의 균형을 강조하는 배려의 윤리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배려의 윤리와 새로운 유교적 가치관을 서로 통합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합한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덕성 발달을 정의와 배려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인간의 도덕성에 관한 통합적인 이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도덕성 발달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 중 몇몇 연구들(Gilligan & Attanucci, 1988; Lyons, 1983; Pratt, Golding, Hunter, & Sampson, 1988)은 도덕적 추론에 있어서 남녀간에 성차가 있음을 입증한 반면, 또 다른 연구들(Ford & Lowery, 1986; Friedman, Robinson, & Friedman, 1987; Walker, 1989)은 남녀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성차에 대하여 일치된 결론

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성차보다는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도덕성 발달의 차이에 관한 연구들이나 Gilligan의 이론을 근거로 한 배려지향적 도덕성에 관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한편, 연령과 도덕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와 성년기, 중년기에 해당하는 고등학생, 30대 성인, 50대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배려지향적 도덕성과 정의지향적 도덕성이 연령에 따른 발달적 변화(age trend)를 보이는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¹⁾ 동시에 성과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배려지향적 도덕성과 정의지향적 도덕성에 대한 경험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사고방식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배려지향적 도덕성과 정의지향적 도덕성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검토하고자 한다.

1. 배려지향적 도덕성은 연령에 따른 발달적 변화를 보이는가?
2. 정의지향적 도덕성은 연령에 따른 발달적 변화를 보이는가?
3. 배려지향적 도덕성은 성과 성역할 정체감 및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4. 정의지향적 도덕성은 성과 성역할 정체감 및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1) 본연구를 시작할 당시의 의도는 아동기부터 노년기까지의 전생애를 포함한 발달적 변화를 규명해 보는 데 있었으나, 본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들이 아동과 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어 아동기와 노년기는 제외되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30대 성인, 50대 성인 남녀 240명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기, 성년기, 중년기의 도덕성을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표집 방법은 개인적인 사항들을 심도있게 질문하고 개별면접을 해야 하는 관계로, 선·후배와 친지들을 통하여 아는 사람들을 소개받는 방법을 주로 이용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277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하고 면접을 시도하였으나, 이 중에서 263명만의 질문지를 회수하고 그들의 면접 내용을 녹음하였다. 그러나 수집된 자료 중에서 녹음 상태에 문제가 있거나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미완성인 23명분의 자료는 제외하고, 나머지 총 240명의 자료를 실제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 중에서 청소년(고등학생)은 92명(38.3%)이었고, 30대 성인은 88명(36.7%)이었으며, 50대 성인은 60명(25.0%)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연령범위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1학년 28명, 2학년 43명, 3학년 24명이었으며, 30대 성인 중 30~34세가 68명, 35~39세가 20명이었다. 그리고 50대 성인 중 50~54세가 33명이었고 55~59세가 27명이었다. 전체적으로 남성은 115명(47.9%)이고, 여성은 125명(52.1%)이었다.

2. 측정도구

1) 배려지향적 도덕성

배려지향적 도덕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Gilligan의 이론을 근거로 Skoe(1987)가 제작한 「배려의 윤리 면접검사(ECI: Ethic of Care

Interview)」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자들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제작하였다.

ECI는 성인용과 청소년용을 구분하여 제작하였다. 그 이유는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사회적 관계망이나 경험의 폭이 제한되어 있으며, 경험의 질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청소년기는 학교를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지만, 성인들은 보다 다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하여 보다 확대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요즘같이 사회적 조류와 가치관이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성인과 청소년의 경계선이 보다 더 명확해진다.

우선, 「성인용 배려지향의 윤리 면접검사」의 제작을 위하여, 30대와 50대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면접과 토론은 본 연구자들이 번역한 ECI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갈등상황과 Skoe(1987)가 제시한 갈등상황에 관한 의견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각각의 가상적 갈등상황에 대한 소감과 주변에서 비슷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성인들이 실제로 경험한 도덕적 갈등상황은 매우 폭넓은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갈등관계란 이성문제, 특히 이성과의 성관계로 인한 갈등, 결혼문제와 관련된 갈등, 고부간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직장상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군복무 시절 경험한 갈등, 형제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친구간에 일어나는 갈등 등을 포함한다. 또한 Skoe(1987)가 제시한 가상적 갈등상황에 관한 의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부의 50대 성인들은 ① 혼외 임신에 따른 임신중절

의 문제, ②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결혼생활과 이혼의 문제들에 대해 비윤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30대와 50대 성인들 대부분은 주변에서 이러한 상황을 직접 본 적이 있다거나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정사'와 같은 영화도 이러한 사회적 가치관과 현상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면, ③ 부모의 부양에 관한 효(孝)의 문제에서는, 자녀가 성장하면 자립한다는 서구적 가치관과 결혼할 때까지는 부모와 함께 산다는 전통적 가치관 간의 차이가 지적되었다. 게다가 효 사상을 중시하는 가치관 때문에 부모와의 갈등으로 왕래를 안하는 상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당연히 부모님과 화해하고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① 혼외 임신에 따른 임신중절의 문제와 ②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결혼생활과 이혼의 문제에 관한 가상적인 갈등상황은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고, ③ 부모부양에 관한 효의 문제에서는 부모님과의 갈등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여성의 입장에서는 시부모님과의 갈등을 내용으로 하는 갈등상황이 제작되었고, 남성의 입장에서는 부모님과 부인 간의 갈등을 내용으로 하는 갈등상황이 제작되었다.

「청소년용 배려의 윤리 면접검사」의 제작을 위하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면접과 토론을 통해 청소년들이 직접 경험한 도덕적 갈등상황을 살펴보니, 개인마다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는, 학교성적으로 인한 갈등문제, 싸움과 구타의 문제, 웃어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문제, 타인의 지갑을 주웠을 때 일어나는 갈등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부모님, 교사 등)

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갈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이성교제에 대한 갈등, 이성친구와 동성친구와의 삼각관계로 인한 갈등, 부모님이나 교사와의 갈등, 친구들과의 갈등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중에서 자신의 입장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책임감을 반영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다음과 같이 새롭게 구성하였다. 가상적 갈등상황은 ① 이성친구와의 성관계로 인한 임신중절의 문제, ② 이성친구와의 사랑과 동성친구와의 우정 간의 문제, ③ 가족간의 갈등으로 인한 문제들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ECI는 반구조화된 면접 형식으로, 책임이나 배려에 관한 네 가지의 도덕적 갈등상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인용 배려의 윤리 면접검사」중에서, 하나는 연구대상이 실생활에서 경험한 갈등을 질문하였으며, 가상적 갈등상황으로는 성인이 경험하는 ① 혼외 임신에 따른 임신중절의 문제, ②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결혼생활과 이혼의 문제, ③ 부모부양에 관한 효의 문제 등을 다루었다. 한편, 「청소년용 배려의 윤리 면접검사」중에서, 가상적 갈등상황으로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① 이성친구와의 성관계로 인한 임신중절의 문제, ② 이성친구와의 사랑과 동성친구와의 우정 간의 문제, ③ 가족간의 갈등으로 인한 문제 등을 다루었다. 우선은 실생활에서 경험한 갈등이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를 질문하였다. 그리고 나서 가상적 갈등상황들을 제시한 후 어떻게 행동할 것이며, 왜 그렇게 할 것인지를 질문하였다. 여기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보다는 '왜 그러한 반응을 보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상호의존성이나 인간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갈등상황을 이해

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법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배려지향적 도덕성은 자기 중심적인 낮은 단계(제 1수준)에서 타인 중심적인 단계(제 2수준)를 거쳐,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균형을 이루는 높은 단계(제 3수준)로 발달한다. 이 때, 제 1수준과 제 2수준 사이에는 제 1.5수준이, 제 2수준과 제 3수준 사이에는 제 2.5수준의 과도기가 존재한다. 제 1수준은 스스로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수준이다. 제 1.5수준은 자기 자신만의 행복에서 책임감을 중시하는 과도기적 수준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애착이 서서히 나타나는 수준이다. 이는 이기심과 책임감이 공존하는 단계이다. 제 2수준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수준으로, 타인에 대한 책임감이 강조된다. 제 2.5수준은 타인만을 위한 배려와 희생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진실성을 자각하는 과도기적 수준이다. 제 3수준에서는 자신과 타인과의 상호연계성을 통하여 이기심과 책임감 사이에 역동적 관계가 형성된다는 데에 초점을 둔다.

Skoe(1987)가 각 수준별 특성과 사례들을 보고한 「배려의 윤리 면접 분석방법」에 따라, 각 갈등상황마다 연구대상자에게 해당되는 단계를 결정하고, 연구대상자에게 해당하는 도덕 수준의 평균과 총합을 산출하였다. 이러한 평균치를 기준으로, 1.25 이하이면 제 1수준, 1.25와 1.75사이이면 제 1.5수준, 1.75와 2.25사이이면 제 2수준, 2.25와 2.75사이이면 제 2.5수준, 2.75 이상이면 제 3수준이 된다. 즉, 배려지향적 도덕성 수준은 연구대상자가 해당하는 단계들의 평균을, 배려지향적 도덕성 점수는 연구대상자가 해당하는 단계들의 총합을 의미한다.

「배려의 윤리 면접검사」는 아동학 전공교수

3인과 3명의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들이 그 내용을 검토해 주었다. 그리고 배려지향적 도덕성을 분석한 후, 평정자간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들과 연구보조원의 평정자간 일치도와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Skoe와 Marcia(1991)가 보고한 배려지향적 도덕성의 평정자간 일치도는 93%~95%였고, 평정자간 신뢰도는 Cohen's kappa=.86~.94였다. 본 연구에서의 평정자간 일치도는 73%~96%였고, 평정자간 신뢰도는 Cohen's kappa=.76~.92였다.

2) 정의지향의 도덕성

Rest(1979)의 「주제정의검사(DIT : Defining Issues Test)」는 Kohlberg의 주관식 개인면담 방법을 객관식 표준화로 변형·작성하여 도덕의 판단능력을 검사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측정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용린(1986)이 제작한 「도덕 판단력 검사(한국형 DIT)」를 사용하였다. 도덕 판단력 검사는 원래의 갈등상황 중에서 '남편의 고민', '탈옥수', '의사와 환자'를 번역한 간편형에 해당한다. 이는 세 가지의 갈등상황과 각 갈등상황마다 12문항씩, 총 36개의 질문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각 12문항씩 총 36문항에 대한 피험자의 평정은 각기 Kohlberg의 도덕성 발달단계의 하나를 나타내는 것이며, 개인 점수는 P(%)점수로 나타낸다. P(%)점수는 각 갈등상황의 12문항 중에서 피험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추출한 네 문항의 순위를 바탕으로 산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수이다. 즉, 각 문항에 해당하는 단계별(2, 3, 4, 5A, 5B, 6) 점수를 합하여 단계별 점수를 구하며, 이 단계별 점수 중에서 5A, 5B, 6단계의 점수를 합산하여 P점수를 구하게 된다. 이 때 P점수를 .3으로 나누면 P(%)점수가 산출되는 것이다. 만

약 어떤 피험자의 P(%) 점수가 23.3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그 피험자의 도덕적 사고 중에서 5A, 5B, 6단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23.3%임을 뜻한다. 이는 피험자의 도덕적 판단 중에서 후인습적 수준인 5, 6단계의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키므로, P(%)점수가 높을수록 그 피험자의 도덕적 판단 수준이 높은 단계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3) 성역할 정체감

성역할 정체감을 알아보기 위하여 정진경(1990)이 개발한 「한국 성역할 검사(KSRI : Korean Sex Role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한국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밝혀내어 이를 기초로 제작한 검사방법으로서, 남성성 척도 20문항, 여성성 척도 20문항, 그리고 긍정성 척도 20문항의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성성 문항은 여성에게보다는 남성에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긍정적 문항들이고, 여성성 문항은 남성에게보다는 여성에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긍정적 문항들이다. 중성적이고 자신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으로 표현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긍정성 문항은 어느 한 성에게 더 바람직한 특성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문항들이다. 여기서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는 논리적으로 상호독립적인 것으로, 계산 과정에서도 독립적으로 산출된다.

성역할 정체감 유형의 분류 방법으로는 중앙치 분리법(Median Split Procedure)을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각 연구대상자의 남성성 척도와 여성성 척도의 점수를 산출한 후, 각각의 중앙치를 구하였다.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의 중앙치를 기준으로, 두 점수가 모두 중앙치보

다 높으면 양성적 정체감, 남성성 점수는 중앙치보다 높고 여성성 점수가 중앙치보다 낮으면 남성적 정체감, 여성성 점수는 중앙치보다 높고 남성성 점수가 중앙치보다 낮으면 여성적 정체감, 두 점수가 모두 중앙치보다 낮으면 미분화 정체감으로 분류하였다. 정진경(1990)이 보고한 성역할 정체감 척도의 신뢰도는 각 하위 영역별로 Cronbach's $\alpha=.75\sim.91$ 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6\sim.84$ 였다.

3. 연구절차

제1차 예비조사는 2000년 12월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되었다. 그리고 본연구자들이 수정·작성한 「배려의 윤리 면접검사」의 내용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아동학 전공교수 3인과 3명의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들에게 의뢰하여 질문내용을 검토받았다.

제2차 예비조사는 2000년 12월 18일부터 2001년 1월 14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제1차 예비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수정한 검사도구를 가지고 청소년, 30대 성인, 50대 성인 각 10명씩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때 조사를 실시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지,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였다.

본 조사는 2001년 2월 19일부터 5월 25일까지 실시되었다. 특히, 배려지향적 도덕성의 측정에는 면접자와 연구대상자 간의 일대일 면접을 통하여 실시되었으며, 각각의 면접은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되었다. 면접자가 측정 도구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한 후, 성역할 정체감과 정의지향적 도덕성에 대한 문항을 측정하고, 배려지향적 도덕성에 관한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자는 피면접자에게 조금도 강요나 압력을 가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의견을 솔직

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필요할 때마다 다양한 보충 질문들을 통하여 갈등상황과 판단 근거에 관한 심도있는 반응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였다. 면접자가 배려의 윤리 면접검사를 실시하며 소요된 시간은 개인당 15~30분 정도였다. 여기서 면접자와 평정자는 본연구자들 중 1명과 전에 배려지향적 도덕성연구를 수행하여 이미 면접과 평정의 경험이 있는 아동학 전공 석사졸업생 1명으로 구성되었다. 면접이 끝난 후에는 녹음한 내용을 기록에 옮기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 기록을 가지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2명의 평정자가 각 반응의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평정자 간에 분류가 일치하지 않는 기록 내용에 대해서는 토의를 통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4. 자료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을 파악하고, 배려

지향적 도덕성과 정의지향적 도덕성이 갖는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중앙치 반분법(median-split method)에 의하여 성역할 정체감 유형을 네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배려지향적 도덕성의 평정자간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Cohen's kappa를 실시하고, 성역할 정체감의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를 실시하였다. 성과 성역할 정체감 및 연령에 따라 배려지향적 도덕성과 정의지향적 도덕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삼원변량분석(thre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변량분석에서 F값이 유의하게 나왔을 때,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é 중다비교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경우에 단순주효과(simple main effect) 검증을 실시하였다. 여기에서 모든 검사의 유의수준은 .05로 정했다. 이상의 통계 처리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10.0을 이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배려지향적 도덕성

1) 배려지향적 도덕성의 일반적 경향

배려지향적 도덕성 수준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배려지향적 도덕성의 각 수준에 따라 빈도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배려지향적 도덕성은 제 2수준(49.6%)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제 1.5수준(41.3%)이, 그리고 다음으로 제 2.5수준(5.0%), 제 1수준(4.2%) 순이었으며, 제 3수준은 나타나지 않았

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제 2수준(30.8%)이 가

<표 1> 배려지향적 도덕성 수준별 빈도

배려지향 도덕성 수준	성 별		전 체
	남	여	
제 1수준	7(2.9)	3(1.3)	10(4.2)
제 1.5수준	62(25.8)	37(15.4)	99(41.3)
제 2수준	45(18.8)	74(30.8)	119(49.6)
제 2.5수준	1(0.4)	11(4.6)	12(5.0)
제 3수준	0(0.0)	0(0.0)	0(0.0)
전 체	115(47.9)	125(52.1)	240(100.0)

() 안의 수치는 백분율임

장 많았으나, 남성은 제 1.5 수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표 3>, <표 4>에는 청소년, 성년, 중년별로 성과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배려지향적 도덕성의 평균점수가 제시되어 있다.

<표 2> 성과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청소년의 배려지향적 도덕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 (N=92)

	남		여		전 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양성적 정체감	6.53	1.41	6.67	1.56	6.59	1.45
남성적 정체감	6.67	1.00	6.92	1.04	6.82	1.00
여성적 정체감	6.57	1.65	6.80	1.10	6.63	1.50
미분화 정체감	6.18	1.40	6.77	1.30	6.50	1.35
전 체	6.49	1.39	6.79	1.25	6.63	1.32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라 청소년의 배려지향적 도덕성 점수를 살펴보면, 여학생(M=6.79)이 남학생(M=6.49)보다 배려지향적 도덕성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도덕성 점수를 살펴보면, 남성적 정체감(M=6.82)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여성적 정체감(M=6.63), 양성적 정체감(M=6.59), 미분화 정체감(M=6.50)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성과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30대 성인의 배려지향적 도덕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 (N=88)

	남		여		전 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양성적 정체감	6.00	.01	7.91	1.65	7.42	1.65
남성적 정체감	7.20	1.03	7.20	1.10	7.20	1.01
여성적 정체감	7.56	.88	8.00	1.33	7.79	1.13
미분화 정체감	6.93	1.03	8.00	1.51	7.30	1.29
전 체	6.95	1.01	7.87	1.48	7.43	1.35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라 30대 성인의 배려지향적 도덕성 점수를 살펴보면, 여성(M=7.87)이 남성(M=6.95)보다 배려지향적 도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도덕성 점수를 살펴보면, 여성적 정체감(M=7.79)이 가장 높았으며, 양성적 정체감(M=7.42), 미분화 정체감(M=7.30), 남성적 정체감(M=7.20)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성과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50대 성인의 배려지향적 도덕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²⁾ (N=60)

	남		여		전 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양성적 정체감	6.44	1.33	8.00	.01	7.18	1.24
남성적 정체감	6.00	.01	*	*	6.00	.01
여성적 정체감	7.33	1.00	8.00	.01	7.76	.66
미분화 정체감	6.00	.01	7.50	.90	7.20	1.01
전 체	6.67	1.13	7.83	.56	7.37	1.01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라 50대 성인의 도덕성 점수를 살펴보면, 여성(M=7.83)이 남성(M=6.67)보다 배려지향적 도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도덕성 점수를 살펴보면, 여성적 정체감(M=7.76)이 가장 높았으며, 미분화 정체감(M=7.20), 양성적 정체감(M=7.18), 남성적 정체감(M=6.00)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2) 성과 성역할 정체감 및 연령에 따른 배려지향적 도덕성

성과 성역할 정체감 및 연령에 따라 배려지향적 도덕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남·여)×성역할 정체감(양성적·남성적

2) 50대 성인들은 사례수가 적어서 여성이면서 남성적 정체감을 보이는 집단은 나타나지 않았다.

· 여성적 · 미분화) × 연령(청소년 · 30대 · 50대)의 삼원변량분석(thre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그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이를 통해, 성과 성역할 정체감 및 연령에 의한 주효과뿐만 아니라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서도 분석할 수 있었다.

<표 5> 성과 성역할 정체감 및 연령에 따른 배려지향적 도덕성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연령	34.22	2	17.11	11.82***
성별	32.42	1	32.42	22.40***
성역할 정체감	8.07	3	2.69	1.86
연령 × 성별	6.89	2	3.45	2.38
연령 × 성역할 정체감	.53	6	1.42	.98
성별 × 성역할 정체감	6.52	3	2.17	1.50
연령 × 성별 × 성역할 정체감	6.29	5	1.26	.87
오차	314.10	217	1.45	
전체	413.18	239		

*** $p < .001$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배려지향적 도덕성은 연령($F=11.82, p<.001$)과 성별($F=22.40, p<.001$)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하였으나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주효과를 포함하여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배려지향적 도덕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어떤 연령 집단 간에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6> 연령에 따른 배려지향적 도덕성 사후 검증

연구 대상	인원(명)	평균	표준편차	grouping
청소년	92	6.63	1.32	a
30대 성인	88	7.43	1.35	b
50대 성인	60	7.37	1.01	b

ab : 같은 문자끼리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표 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배려지향적 도덕성은 청소년과 30대와 50대 성인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0대와 50대 성인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30대와 50대를 포함한 성인이 청소년보다 배려지향적 도덕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 정의지향적 도덕성

1) 정의지향적 도덕성의 일반적 경향

정의지향적 도덕성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정의지향적 도덕성의 각 단계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그리고 Rest(1979)는 정의지향적 도덕성을 어떤 특정한 단계로 나타내지 않고, 후인습적 수준인 제 5A, 5B, 6 단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P(%)점수로 보여주었다. 이에 후인습적 수준의 비율을 의미하는 P(%)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7> 정의지향적 도덕성 단계별 평균 및 표준편차

정의지향 도덕성 수준	남		여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인습적 수준						
제 2 단계	1.83	3.78	4.19	5.39	3.06	4.82
인습적 수준						
제 3 단계	28.67	14.62	22.27	12.26	25.33	13.79
제 4 단계	23.07	13.25	22.40	12.94	22.72	13.07
후인습적 수준						
제 5A 단계	21.83	14.24	23.97	15.01	22.94	14.65
제 5B 단계	3.65	4.75	3.97	4.95	3.82	4.85
제 6 단계	8.58	7.32	10.61	8.61	9.64	8.07
P(%)점수	34.06	16.51	38.56	18.58	36.40	17.73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습적 수준인 제 3단계($M=25.33$)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

이고 있으며, 그 다음은 후인습적 단계인 제 5A 단계(M=22.94), 인습적 수준인 제 4단계(M= 22.7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후인습적 수준의 비율을 의미하는 P(%)점수의 평균은 36.40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습적 수준인 제 3단계와 제 4단계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후인습적 수준인 제 5A단계, 제 5B단계, 제 6단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P(%) 점수는 남성(M=34.06)보다 여성(M=38.56)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표 9>, <표 10>에는 청소년, 성년, 중년별로 성과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정의지향적 도덕성의 평균점수가 제시되어 있다.

<표 8> 성과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청소년의 정의지향적 도덕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 (N=92)

	남		여		전 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양성적 정체감	40.22	18.02	43.33	19.90	41.60	18.57
남성적 정체감	35.19	13.34	36.92	17.97	36.21	15.91
여성적 정체감	37.38	13.15	40.00	5.27	38.07	11.51
미분화 정체감	34.24	12.30	45.38	12.80	40.28	13.55
전 체	37.14	14.43	41.63	16.06	39.24	15.30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도덕성을 살펴보면, 여학생(M=41.63)이 남학생(M= 37.14)보다 정의지향적 도덕성이 높았다. 또한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도덕성을 살펴보면, 양성적 정체감(M=41.60)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미분화 정체감(M=40.28), 여성적 정체감(M=38.07), 남성적 정체감(M=36.21)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도덕성을 살펴보면, 여성(M=48.26)이 남성(M=

34.44)보다 정의지향적 도덕성이 높았다. 또한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도덕성을 살펴보면, 양성적 정체감(M=45.48)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미분화 정체감(M=41.88), 여성적 정체감(M=38.42), 남성적 정체감(M=37.56)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성과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30대 성인의 정의지향적 도덕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 (N = 88)

	남		여		전 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양성적 정체감	31.67	11.41	50.29	19.69	45.48	19.58
남성적 정체감	37.33	22.49	38.00	14.06	37.56	19.54
여성적 정체감	32.96	8.41	43.33	10.66	38.42	10.79
미분화 정체감	34.89	20.93	55.00	16.04	41.88	21.36
전 체	34.44	17.34	48.26	17.24	41.67	18.53

<표 10> 성과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50대 성인의 정의지향적 도덕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³⁾ (N = 60)

	남		여		전 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양성적 정체감	20.00	12.58	23.75	17.13	21.76	14.53
남성적 정체감	53.33	.00	*	*	53.33	.00
여성적 정체감	28.89	19.22	19.38	8.80	22.80	13.90
미분화 정체감	16.67	.00	25.83	9.96	24.00	9.61
전 체	27.08	17.56	22.50	11.47	24.33	14.27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도덕성을 살펴보면, 남성(M=27.08)이 여성(M= 22.50)보다 정의지향적 도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도덕성을 살펴보면, 남성적 정체감(M=53.33)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미분화 정체감(M=24.00),

3) 50대 성인들은 사례수가 적어서 여성이면서 남성적 정체감을 보이는 집단은 나타나지 않았다.

여성적 정체감(M=22.80), 양성적 정체감(M=21.76)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2) 성과 성역할 정체감 및 연령에 따른 정의지향적 도덕성

성과 성역할 정체감 및 연령에 따라 정의지향적 도덕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남·여) × 성역할 정체감(양성적·남성적·여성적·미분화) × 연령(청소년·30대·50대)의 삼원변량분석(thre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그 분석 결과는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이를 통해, 성과 성역할 정체감 및 연령에 의한 주효과뿐만 아니라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서도 분석할 수 있었다.

<표 11> 성과 성역할 정체감 및 연령에 따른 정의지향적 도덕성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연령	11918.83	2	5959.41	24.46 ***
성별	1951.71	1	1951.71	8.01 **
성역할 정체감	394.23	3	131.41	.54
연령 × 성별	1734.80	2	867.40	3.56 *
연령 × 성역할 정체감	2464.08	6	410.68	1.69
성별 × 성역할 정체감	1544.11	3	514.70	2.11
연령 × 성별 × 성역할 정체감	517.67	5	103.53	.43
오차	52871.56	217	243.65	
전체	75105.09	239		

* $p < .05$, ** $p < .01$, *** $p < .001$

<표 1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정의지향적 도덕성은 연령($F=24.46$, $p < .001$)과 성별($F=8.01$, $p < .01$)에 따른 주효과뿐만 아니라 연령 및 성별의 상호작용효과($F=3.56$, $p < .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여성이 남성보다 정의지향적 도덕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떤 연령 집단 간에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

과는 <표 12>에 제시된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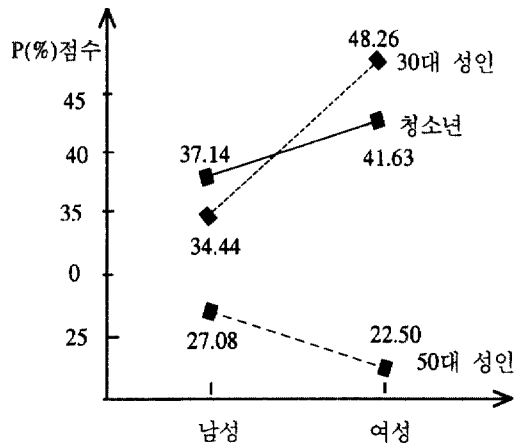
<표 12> 연령에 따른 정의지향적 도덕성 사후 검증

연구 대상	인원(명)	평균	표준편차	grouping
청소년	92	39.24	15.30	a
30대 성인	88	41.67	18.53	a
50대 성인	60	24.33	14.27	b

ab : 같은 문자끼리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표 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청소년 및 30대 성인과 50대 성인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50대 성인보다 청소년과 30대 성인이 정의지향적 도덕성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는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청소년과 30대 성인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정의지향적 도덕성이 높지만 50대 성인의 경우에는 그 반대이다. 전반적으로 남성의 경우 청소년, 30대 성인, 50대 성인 간에 도덕성 점수의 차이가 크지 않으나 여성의 경우 그 차이가 매우 심하였다. 뿐만 아니라, 남성의 경우에는 청소년, 30대 성인, 50대 성인 순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도덕



<그림 1> 연령과 성의 상호작용에 따른 정의지향적 도덕성

성이 낮아지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30대 성인, 청소년, 50대 성인 순으로 도덕성이 낮아 남성과는 다른 경향을 보인다.

정의지향적 도덕성에서 연령과 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남녀별로 연령에 따른 정의지향적 도덕성을 분석하는 단순주효과(simple main effec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성과 여성 모두 정의지향적 도덕성에서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청소년과 50대 성인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이 50대 성인보다 정의지향적 도덕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50대 성인과 청소년 및 30대 성인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50대 성인이 청소년이나 30대 성인보다 정의지향적 도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성과 연령에 따른 정의지향적 도덕성의 단순주효과 검증

	남		여	
	평균(표준편차)	grouping	평균(표준편차)	grouping
청소년	37.14(14.33)	a	41.63(16.06)	a
30대 성인	34.44(17.34)	ab	48.26(17.24)	a
50대 성인	27.08(17.56)	b	22.50(11.47)	b
	F = 3.12*		F = 29.63***	

* $p < .05$, *** $p < .001$

ab : 같은 문자끼리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IV. 논의 및 결론

1. 배려지향적 도덕성 발달

성과 성역할 정체감 및 연령에 따라 배려지향적 도덕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 × 성역할 정체감 × 연령의 삼원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배려지향적 도덕성은 연령과 성별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배려지향적 도덕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과 30대 성인 및 청소년과 50대 성인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30대와 50대 성인의 경우가 청소년보다 배려지향적 도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역할 정체감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1차 상호작용효과와 2차 상호작용효과 중 어느 것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배려지향적 도덕성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성별에 따라 도덕적 지향성이나 도덕적 판단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들(Gilligan & Attanucci, 1988; Lyons, 1983; 정옥분과 광경화, 2001)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Gilligan(1982)에 의하면, 여성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많은 시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친밀감을 중심으로 도덕성이 발달하도록 교육받는다고 한다. 한편, 남이는 어머니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특성을 발달시킨다. 따라서 남이는 용기와 정의 등과 같은 도덕적 덕목을 익히는 반면, 여이는 희생이나 배려 등과 같은 도덕적 덕목을 익히게 된다. 이와 같은 양육행동의 원리가 배려지향적 도덕성에 있어 성차를 유발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년이 성인보다 배려지향적 도덕성이 낮은 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은 성인보다 교육이나 경험이 부족하여 아직 배려지향적 도덕성이 완전하게 발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집단주의적 가치관이 점차 사라지고, 오히려 개인주의적 성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우리 사회 청소년들의 모습을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다(설인자, 2000). 그동안 우리는 성공이나 성취, 평등과 경쟁, 자율성과 개인주의 등으로 대변되는 서구적 가치를 무분별하게 수용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구적 가치관과 전통적 가치관이 충돌하였으며, 타인에 대한 무관심, 왜곡된 개인주의, 집단이기주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였다(박병춘, 1999). 특히, 청소년의 개인주의가 날로 심화되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 자기 중심적으로 되면서, 인간적인 면을 상실한 세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설인자, 2000). 바꾸어 말하면, 이러한 가치관의 변용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외면하고, 자신의 권리와 이익만을 추구하는 왜곡된 개인주의로서의 이기적 행동양식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절차의 정당성을 무시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양식은 당장에는 비행이나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결국에는 사회의 통합성을 저하시키고 공동체적 기반을 와해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강완숙, 1998)는 것이다.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서는 배려지향적 도덕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배려지향적 도덕성 수준이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Söchting, Skoe, 그리고 Marcia(1994)의 연구결과와 상반된다. 그리고 성역할 정체감이 배려지향적 도덕성에 있어

서 중요한 예언변인이라고 한 Gump(1994)의 결과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들 연구에서는 배려지향적 도덕성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보다는 오히려 남성성이나 여성성과 같은 성역할 정체감과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배려지향적 도덕성이 더 높은 것이 아니라 여성이든 남성이든 배려지향적 도덕성은 성역할 지향이 여성성인 사람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2. 정의지향적 도덕성발달

성과 성역할 정체감 및 연령에 따라 정의지향적 도덕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 × 성역할 정체감 × 연령의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의지향적 도덕성은 연령과 성별에 따른 주효과뿐만 아니라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정의지향적 도덕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본 연구의 결과는 매우 흥미롭다. 이것은 Kohlberg의 이론을 근거로 하는 DIT에 성차가 없다고 한 Rest(1979)의 결과와 다름뿐만 아니라, 여성이 남성보다 정의지향적 도덕성이 낮은 수준에 머문다는 Kohlberg의 주장과도 상반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배려지향적 도덕성과 정의지향적 도덕성은 서로 상반되는 도덕성이라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정의의 윤리와 배려의 윤리를 통합하고,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박병춘, 1999).

연령에 따른 정의지향적 도덕성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정의지향적 도덕성은 청소년과 30대 성인 간에는 차이가 없고, 청소년과 50대 성인 간이나 30대 성인과 50대 성인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50대 성인이 청소년이나 30대 성인보다 정의지향적 도덕성이 낮게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들은 청소년을 성인과 동등한 도덕적 존재 혹은 도덕행위자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입장은 도덕교육에서도 청소년을 도덕적으로 미숙한 존재로 가정하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평등한 입장에서 청소년과 성인 간의 민주적인 관계 형성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김정금, 1997). 또한 도덕적 사고가 노년기에도 저하되지 않는 것으로 보거나 오히려 도덕적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더 확고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Chap, 1985, 1986)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50대 성인들의 정의지향적 도덕성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는 것은 첫째, 우리 사회의 고유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중년기는 1940~1950년을 전후하여 출생한 세대로서, 외래문화에 크게 오염되지 않고,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던 가부장적 가족주의적 가치의식을 어느 정도는 지니고 있으며, 평등한 부부관계에 익숙하지 못하고,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의식도 강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명자, 1998). 게다가 청소년이나 30대 성인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이 후인습적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50대 성인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P(%)점수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둘째, 50대 성인들의 정의지향적 도덕성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는 것은 도덕적 추론능력이 낮은 것보다는 인지적 능력이 감소한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도덕적 판단력 검사」는 선택형 검사로서, 피검사자들로 하여금 주어진 도덕적 사고에 대한 문장들의 중요성을 평가하게 하고, 유형에 따른 도덕적 사고의 발달수준

을 알아보는 방식이다. 그러나 50대 성인들은 질문 문항들의 중요도를 평정하는 데 있어서, 다른 세대보다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이해능력의 저하가 정의지향적 도덕성 자체가 낮게 나오도록 작용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셋째, 50대 성인들의 정의지향적 도덕성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는 것은 사회적인 경험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그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자율적인 경험을 통하여 정의의 윤리를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경우는 도덕성이 갈수록 상실되어 가는 사회적 병리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도덕적 불감증의 팽배라고 말할 정도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그 구성원들 자체는 정의의 윤리를 실천하고자 하나, 여러 번에 걸친 그 시도가 실패한 경험으로 인하여 정의의 윤리가 점차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령과 성별 상호작용효과에 관해서는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청소년과 30대 성인의 경우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정의지향적 도덕성이 높지만 50대 성인의 경우는 그 반대였다. 50대 성인들은 1940~1950년을 전후하여 출생한 세대이다. 50대 성인세대의 경우에는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은 무조건 순종하고 역경을 인내하는 것을 덕으로 간주하였으며, 당연히 여성의 입장에서 독립심과 자율성, 평등을 내세우는 정의지향적 도덕성을 자연스럽게 제한받을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가치관의 영향 때문에 50대 여성들의 정의지향적 도덕성이 남성보다 낮은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반면, 서구적 가치관의 유입으로 30대 여성들이나 여학생들은 자율성이나 평등에 대한 교육을 50대 여성들에 비

해 많이 받은 편이다. 게다가 50대 여성들은 성 역할 고정관념이 확고한 세대라고도 볼 수 있다. 즉, 남성은 남성적 역할을, 여성은 여성적 역할을 강조하다보니 여성은 남성 지향적이고 할 수 있는 정의지향적 도덕성이 낮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 30대 성인, 50대 성인 간의 정의지향적 도덕성 점수의 차이가 남성은 그 폭이 적은 데 반해, 여성은 그 폭이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서구적 가치관의 유입과 이에 따른 교육기회의 증대 때문으로 여겨진다. 즉, 급격한 사회변화가 남성에게도 영향을 미쳤지만 여성에게 더욱 심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가치관의 변화를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여성은 무조건 순종하고 역경을 인내하는 것을 미덕으로 간주하였으나, 교육의 기회가 증대되면서 여성도 독립심이나 자율성, 인간존중을 강조하는 서구적 가치관을 수용하면서 급격한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셋째, 남성은 청소년, 30대 성인, 50대 성인 순으로 정의지향적 도덕성이 낮아지고 있으나 여성은 30대 성인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청소년, 50대 성인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30대 여성들이 경험한 사회적 변혁이 가장 컸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30대 여성들은 서구적 가치관이 유입되면서 대학교육을 받기 시작한 세대이며, 민주적 의식이 강조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세대로, 기존 가치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세대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러한 가치관을 통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나, 여성에게 있어서 인식의 변화를 야기하는 막대한 효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3. 배려지향적 도덕성과 정의지향적 도덕성의 통합적 이해

배려지향적 도덕성과 정의지향적 도덕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은 배려지향적 도덕성이든 정의지향적 도덕성이든 성과 성역할 정체감에 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30대 성인은 배려지향적 도덕성과 정의지향적 도덕성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배려지향적 도덕성과 정의지향적 도덕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성인들의 경우는 정의지향적 도덕성에서는 남성이 높게 나왔으나, 배려지향적 도덕성에서는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세대간의 특징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이 도덕성에 있어 성차가 없는 것은 핵가족화되면서 자녀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자녀의 성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에 차이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청소년은 또한 서구적 가치관을 교육받은 세대이다. 즉, 평등한 가치관을 기반으로 개인능력과 성취에 따른 보편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기회를 누린 세대이고, 수평적 인간관계를 교육받아 남녀 구분이 가장 많이 감소한 세대이다. 한편, 30대 성인들의 경우에는 배려지향적 도덕성과 정의지향적 도덕성이 서로 상반되는 도덕성으로 간주되기도 하는 상호보완적으로 도덕성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30대 여성은 배려지향적 도덕성과 정의지향적 도덕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386세대로 평가되는 독특한 특징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은 전통적 가치관을 간직하고 있어서 배려지향적 도덕성이 높지만, 여성에 대한 교육기회가 증대되면서 자율성과 정의, 평등, 인간존중과

같은 서구 가치관을 교육받은 세대이기도 하다. 한편, 50대 성인의 경우는 뚜렷한 성차를 보이고 있다. 정의지향적 도덕성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반면, 배려지향적 도덕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가지고 설명해 볼 수 있는데, 오늘날의 50대는 성역할 규범이 보다 융통성있는 시대에서 성장한 젊은 세대보다 성역할 지향이 보다 더 전통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성은 남성적 역할을, 여성은 여성적 역할을 강조하다보니 남성은 남성 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지향적 도덕성이 높고, 여성은 여성 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배려지향적 도덕성이 높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를 종합해 보면,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세대간의 뚜렷한 차이를 엿볼 수 있다. 정의지향적 도덕성은 낮고, 배려지향적 도덕성이 높은 50대 성인은 전통적 가치관에 의해 지배된다고 할 수 있다. 50대 성인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공동체 의식을 우선시한다. 즉, 우리 사회의 중년세대들은 1940~1950년을 전후하여 출생한 세대로서, 외래문화에 크게 동화되지 않고,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족주의적 가치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부모의 부양에 대한 책임의식도 강한 세대임을 알 수 있다(김명자, 1998).

한편, 정의지향적 도덕성과 배려지향적 도덕성이 모두 높은 30대 성인들은 서구적 가치관과 전통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세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효의식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현대적 교육을 받고, 서구적 가치관을 체득해 온 세대이기 때문이다. 즉, 30대 성인은 전통적 가치관과 서구적 가치관이 교체되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개

인주의를 보다 강조하는 청소년과 전통적 가치관을 보다 중시하는 50대 성인 사이에서 중간자적 위치에 있다.

반면, 정의지향적 도덕성은 비교적 높은 편이고, 배려지향적 도덕성은 비교적 낮은 편인 청소년은 서구적 가치관을 상당히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집단주의적 가치관은 점차 사라지고, 오히려 개인주의적 성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설인자, 2000).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세대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바꾸어 말하면, 전통적 가치관을 고수하며 10대 청소년 자녀를 둔 50대 성인들과, 상대적으로 서구적 가치관에 익숙하고, 50대 성인들을 부모로 둔 청소년 간의 단절과 괴리를 어떻게 메꾸어 나갈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50대 성인들은 효를 중시하며, 부모 봉양에 최선을 다해 왔지만, 자녀로부터는 이와 같은 부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반면, 청소년들은 학교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구현, 자율과 독립심 등의 가치관을 교육받지만, 실제로는 현실과의 괴리를 경험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21세기를 대변할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가치관과 서구적 가치관, 세대간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

끝으로 이상의 논의와 결론을 토대로 하여 후속 연구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배려지향적 도덕성 측정도구는 Skoe(1987)가 개발한 「배려의 윤리 면접검사」를 본 연구자들이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도록 수정하여 작성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덕적 갈등상황이 서구의 가치관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갈등상황이 보다

우리 현실에 맞게 개정·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어떤 어려운 갈등을 경험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갈등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성년기, 중년기를 대상으로 하여 배려지향적 도덕성과 정의지향적 도덕성이 연령에 따른 발달적 변화를 보이는

지 알아 보았다. 그러나 본연구는 횡단적 연구이기 때문에, 본연구에서 나타난 발달적 변화가 연령의 차이일 수도 있고 동시대 출생집단 효과(cohort effect)라고 불리는 세대간의 차이일 수도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배려지향적 도덕성과 정의지향적 도덕성의 발달적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곽완숙(1998). 가족의 가치지향과 부모의 도덕성 및 훈육이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12), 11-24.
- 곽경화·정옥분(2000).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1(2), 213-232.
- 김명자(1998). *중년기 발달*. 서울: 교문사.
- 김보들맘(1993). 도덕적 규칙 위반과 인습적 규칙 위반에 대한 아동의 개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영(1987). 우리 나라 고등학생의 양성적 성역할 정체감과 자아실현성 및 도덕성 발달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미(1996). 부모의 성격 특성과 아동의 도덕성 발달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효과.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금(1997). 청소년관련 가정들의 한계와 도덕교육. *교육철학*, 15, 75-87.
- 김정만(1993). 국민학생의 도덕적 판단수준과 도덕적 행위와의 관계.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은(1996). 캐롤 길리간의 배려 윤리의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병춘(1995). 도덕교육에서의 도덕적 성숙의 근거 연구: 길리간의 보살핌의 윤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병춘(1999). 보살핌 윤리의 도덕교육적 접근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윤명(1997). 도덕성의 구성과 도덕 교육의 통합적 접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설인자(2000). N세대의 친사회도덕발달. N세대의 새로운 행동 패러다임: 청소년의 사회성, 도덕성을 중심으로. 발달심리학회 춘계 심포지움 자료집, pp.71-79.
- 심재호(1992). 한국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 경향에 대한 분석 연구: J. R. Rest의 DIT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광규(1975).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서울: 일지사.
- 이나현(1997). 배려의 윤리적 관점에서 접근한 도덕 판단 지향성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동원(1992). 도덕성 회복을 위한 교육의 과제. 지역사회의 윤리적 환경, 제3회 사회윤리 심포지움, 제3분과 가정과 지역사회 윤리적 기능, pp. 216-225.
- 이미식(2000). 정의와 배려의 윤리적 논쟁과 도덕교육에 대한 함의.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미연(2000). 한국 고등학생의 배려지향적 도덕성과 정의지향적 도덕성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곽경화(2001). 성년기의 도덕성에 관한 연구.

- 대한가정학회지, 39(2), 225-238.
- 정옥분 · 김광웅 · 김동춘 · 유가효 · 윤종희 · 정현희 · 최경순 · 최영희(1997). 전통 효 개념에서 본 부모역할 인식과 자녀양육 행동. *아동학회지*, 18(1), 81-107.
- 정진경(1990). 한국 성역할 검사(KSRI).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5(1), 82-92.
- 최연실(1994). 한국가족에서의 성불평등적 문제들과 여성론적 가족치료에 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32(2), 145-160.
- Bem, S. L.(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 Chap, J. B.(1985-1986). Moral judgment in middle and late adulthood : The effects of age- appropriate moral dilemmas and spontaneous role taking.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22, 161-171.
- Deaux, K.(1989). *남녀의 행동연구*. 이해성(역).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원본발간일, 1976).
- DeVitis, J. L., & Rich, J. M.(1999). *도덕 발달이론*. 추병완(역). 서울 : 백의. (원본발간일, 1994).
- Ford, M. R., & Lowery, C. R.(1986). Gender differences in moral reasoning : A comparison of the use of justice and care orient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4), 777-783.
- Friedman, W., Robinson, A., & Friedman, B.(1987). Sex differences in moral judgments? A test of Gilligan's theory. *Psychology of Women's Quarterly*, 11, 37-46.
- Gilligan, C.(1982). *In a different voice :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Gilligan, C., & Attanucci, J.(1988). Two moral orientations : Gender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Merrill-Palmer Quarterly*, 34(3), 223-237.
- Gump, L. S.(1994). The relationship of culture and gender to moral decision-making.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an Diego.
- Kohlberg, L.(1981). *The meaning and measurement of moral development*. Massachusetts : Clark University Press.
- Kohlberg, L., & Candee, D.(1984). The relation of moral judgment to moral action. In L. Kohlberg (Ed.). *The Psychology of Moral Development*, New York : Harper and Row Publishers.
- Lyons, N. P.(1983). Two perspectives : On self, relationships, and morality. *Harvard Educational Review*, 53(2), 125-145.
- Perry, D. G., & Bussey, K.(1984). *Social development*. Prentice-Hall.
- Pratt, M. W., Golding, G., Hunter, W. J., & Sampson, R.(1988). Sex differences in adult moral orient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56, 373-391.
- Rest, J. R.(1979). *Development in judging moral issues*. Minneapolis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Skoe, E. E.(1987). The development and partial validation of a care-based measure of moral development. Doctoral dissertation. Simon Fraser University.
- Skoe, E. E., & Diessner, R.(1994). Ethic of care, justice, identity, and gender : An extension and replication. *Merrill-Palmer Quarterly*, 40(2), 272-289.
- Skoe, E. E., & Gooden, A.(1993). Ethic of care and real-life moral dilemma content in male and female early adolesc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3(2), 154-167.
- Skoe, E. E., & Marcia, J. E.(1991). A measure of care-based morality and its relation to ego identity. *Merrill-Palmer Quarterly*, 37(2), 289-304.
- Söchting, I.(1996). Ethic of care and its relationship to attachment, object relations and social cognition. Doctoral dissertation. Simon Fraser University.
- Söchting, I., Skoe, E. E., & Marcia, J. E.(1994).

- Care-oriented moral reasoning and prosocial behavior : A question of gender or sex role orientation. *Sex Roles, 31*, 131-147.
- Walker, L. J.(1984). Sex differences in the development of moral reasoning : A critical review. *Child Development, 55*, 677-691.
- Walker, L. J.(1989). A longitudinal study of moral reasoning. *Child Development, 60*, 157-166.
- Wark, G. R., & Krebs, D. L.(1996). Gender and dilemma differences unreal-life moral judg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2*(2), 220-230.